

대졸 미취업자의 노동시장 이행유형 분석: 집단중심추세분석을 중심으로*

김진주**

조민호***

본 연구는 국내 청년 실업의 문제가 대졸자에게 집중되어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대졸자가 안정적으로 노동시장에 정착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정책적으로 가장 취약한 집단 중 하나인 2·3년제 전문대와 4년제 이상 대학교를 졸업한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졸업 후 4년 동안 노동시장으로 어떻게 이행해나가는지 유형화하고 이러한 유형에 미치는 요인들을 확인하였다. 청년 대졸 미취업자의 노동시장 이행유형을 분석하기 위해 청년패널조사(YP2007) 1차년도(2007)부터 8차년도(2014)까지 8개년의 자료를 이용하였고, 본 연구의 모형을 노동시장 이행 유형화 분석 단계와 유형 특성 분석 단계로 구성하였다. 1단계인 집단중심추세분석 결과 총 4개의 유형, ① 니트형(21.9%), ② 느린 노동시장 진입형(27.7%), ③ 빠른 노동시장 진입형(41.3%), ④ 노동시장 이탈형(9.1%)이 도출되었다. 2단계 연구모형에서는 인구통계학적 변수, 가구 변수, 대학생활 변수, 졸업 전 구직 변수에 대하여 각 유형별 차이 검증을 실시함으로써 각 유형의 미취업 원인에 대해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를 토대로 각 유형에 적합한 맞춤형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주제어: 대졸 미취업자, 청년 실업, 고학력 실업, 노동시장 이행유형, 집단중심추세분석

I. 서론

현재 우리나라는 만성적인 청년 실업 문제를 겪고 있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2016년 2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15-29세의 청년층 실업률이 12.5%를 기록해 IMF 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청년층(15~29세) 취업자 수는 267

* 이 논문은 2013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3S1A3A2055042).

본 논문은 김진주의 석사학위 논문 중 일부를 수정·보완한 것임.

** 제1저자

*** 교신저자

만 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동일한 수준이지만 청년 고용률은 여전히 40%대 초반에서 정체되어 있으며 청년 실업자는 560만 명으로 전월 대비 147만 명, 전년 대비 76만 명 증가하였다. 또한 청년층 취업애로계층은 117만 명 수준으로 청년들이 실제 체감하는 어려움은 더욱 큰 상황이다. 청년층은 다른 연령의 구직자들과 달리 사회 안전망이 협소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할 경우 그대로 경제 취약계층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다른 연령대보다 실업 문제가 가장 심각한 집단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청년 고용 문제는 대졸자에게 집중되어 있다.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한 LG경제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들어 청년 대졸자의 실업률이 고졸자의 실업률보다 높은 수치를 보인다. 청년 고졸자의 실업률이 2005년 9.1%에서 2014년 8.9%로 감소한 반면, 청년층 대졸자의 실업률은 같은 기간 6.2%에서 9.6%로 크게 상승하며 청년 고졸자의 실업률을 역전하였다. 또한, 대학 졸업 후 취업에 성공하더라도 예전처럼 고졸자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소득을 얻기는 힘들어졌다. 2004년 8월 기준 청년층 대졸자는 고졸자에 비해 29% 높은 임금을 받았으나 2014년에는 그 격차가 25%로 줄어들었다. 뿐만 아니라, 대졸자 내에서의 임금격차가 확대되면서 고졸자보다 낮은 임금을 받는 대졸자도 증가하였다. 청년층에서 고졸의 평균보다 낮은 임금을 받는 대졸자 비중이 2004년 23.8%에서 2014년 32.7%로 증가하여, 청년 대졸자의 3분의 1이 고졸자 평균보다 적게 벌고 있다(고가영, 2015).

청년 대졸자의 실업은 개인에게 뿐만 아니라 사회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개인적 측면에서 보면 노동시장진입 초기에 실업을 직면하는 청년 대졸자는 낙인 효과(stigma effect)를 경험하게 된다. 즉, 청년들이 노동시장 진입초기에 겪게 되는 미취업은 잠재적인 노동수요자들에게 부적절한 노동자라는 인식을 갖게 해 취업 하는데 더욱 어려움을 겪도록 한다. 또한 실업을 경험하는 청년들은 미취업이 장기화될수록 자존감 상실 및 좌절을 경험하고 직장에서의 학습기회를 박탈당하여 개인의 잠재 생산력에 손상을 입으며 평생소득의 감소를 겪게 된다. 사회적 측면에서는 생산능력이 있는 유희인력의 증가를 가져옴으로써 사회적 총생산의 손실을 초래하게 된다. 또한 노동력 수급의 구조적 불균형을 초래하고 노동력의 신기술·신산업에 대한 동태적 적응력 감소를 초래해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 중장기적으로는 근로소득 과세대상 축소에 따른 세액 감소로 정부재정의 손실이 발생하고, 사회복지비용 증가에 따라 재정 부담이 증가하여 정부재정의 불건전화를 초래해 경제의 침체로 이어질 수 있다(채구묵, 2007).

2014년 기준 정규학기를 넘어 대학에 다니는 학생 수는 12만 명이며 이 중 극심한

취업난에 기업들이 대졸자 채용을 기피한다는 이유로 대학 졸업을 유예하는 수는 2011년 8,200명에서 2014년 2만 5천여 명으로 3년새 3배 가까이 증가하였다(배준용 외, 2016) 하지만 이렇게 취업할 때까지 졸업을 유예하는 대학생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대졸자의 33%가 미취업 상태로 졸업하고 있다(김창환 외, 2014). 그러므로 정책적으로 가장 취약한 집단 중 하나인 대졸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노동시장 이행과정을 분석하는 것은 미취업자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모색하기 위하여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각 학계에서는 취업여부, 임금, 기업 규모 등 취업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분석에만 치중하여 대졸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한 분석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미취업 대졸자가 노동시장으로 이행하는 과정을 분석하는 것은 학교교육-직장이행의 원활한 수행에 있어 매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해 줄 수 있으므로 미취업자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청년고용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대졸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노동시장 이행유형에 대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2·3년제 전문대와 4년제 이상 대학교를 졸업한 청년들을 대상으로 졸업 후 4년 동안 노동시장으로 어떻게 이행해나가는지 유형화하고 이러한 유형에 미치는 요인들을 확인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대졸자의 노동시장 이행을 설명할 수 있는 이론을 살펴보고, 우리나라에서는 외환위기 이후 청년 고용 문제 해결을 위해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어떤 정책을 펼쳐왔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또한 대졸자의 노동시장 이행 과정에 관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모형을 설정하여 집단중심추세분석(Group Based Trajectory Analysis)을 통해 노동시장 이행유형을 분석함으로써 향후 대졸 미취업자와 관련한 정책을 수정 및 보완하는데 보다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Ⅱ. 이론적·제도적 배경

1. 청년의 노동시장 성과에 대한 이론적 논의

일반적으로 청년 취업과 관련된 이론들은 노동공급, 노동수요, 노동공급과 수요의 연계 측면 세 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박가열 외, 2008). 첫째 노동 공급 측면에서 인적자본이론(Human Capital Theory)은 개인의 임금 및 고용수준의 차이가 근로자 개인의 생산성 차이에 의해 결정되며, 개별 근로자의 생산성은 학교교육, 직업훈련, 경력이

라는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량의 차이에서 비롯된다고 가정한다(Mincer, 1974: 66). 이에 따라 인적자본의 측정지표로는 주로 정규교육과 직업훈련, 자격증, 기술, 직업력을 조작화하여 사용하고 있다(강영주·송성화, 2011). 시장신호이론(Market Signaling Theory)에서는 교육과 임금 간 정(+)의 상관관계는 인정하지만, 이것은 교육으로 인한 그들의 높은 생산성 때문이 아니라 타고난 능력이 많다는 신호(Signal)를 고용주에게 전달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이에 따라 일반적으로 학력이 신호이론을 측정하는 지표로 사용되며, 선행연구에 따라 직업훈련이 포함되기도 한다.

둘째, 노동 수요 측면으로 노동시장분절이론(Segmented Labor Market Theory)에서는 노동시장이 두 개 혹은 그 이상의 노동시장으로 분절되어 있음을 전제한다. Doeringer & Piore(1971)에 의해 제기된 이중노동시장이론(Dual Labor Market Theory)은 노동시장분절이론의 가장 대표적인 가설로 노동시장은 1차 노동시장(primary sector)과 2차 노동시장(secondary sector)으로 나뉘어진다고 주장한다. 고도의 기술을 필요로 하는 1차 노동시장은 고용이 안정적이고 고임금과 양호한 근로조건, 다양한 승진기회, 직업훈련 등을 보장받는다. 반면, 특별한 기술이 필요하지 않은 2차 노동시장은 임시직이며 낮은 임금수준과 고용불안이 상시적이며, 승진기회가 없거나 극히 적고 직업훈련 기회도 거의 없는 직업들로 구성되어 있다(Doeringer & Piore, 1971). 구조적으로 분절되어 있는 내부노동시장은 상호 배타적이어서 노동시장 간의 이동은 거의 불가능하다. 노동시장 분절 요인으로는 성별, 직종, 교육수준 등이 있으며,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학력과 성별이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이효수·류재술, 1990; 이병희·황덕순, 1999). 통계적 차별이론은 개인적 특성이 아닌 소속집단의 평균적인 특성에 근거하여 노동시장에서 처우를 받음으로써 차별이 발생한다는 이론이다(Phelps, 1972; Aigner & Cain, 1977). 즉, 고용주가 고용을 결정할 때 개인의 생산성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성별, 연령, 인종, 장애, 학력, 경력 등과 같이 쉽게 관찰 가능한 특성들에 대한 과거의 통계적 관찰 결과에 의거하여 채용, 임금, 승진, 보직, 훈련 등을 결정하기 때문에 노동시장에서 차별이 발생한다는 것이다(Phelps, 1972). 통계적 차별이론은 노동수요 측면의 차별적인 관행에서 비롯된 노동시장구조가 청년실업을 발생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음을 시사한다(배성숙·장석인, 2014).

셋째로는 노동의 공급과 수요를 연계시켜주는 과정에 주목하는 이론이다. 노동공급이론과는 달리 직업탐색이론은 구직활동을 하는 실업자의 행동을 설명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며, 직업탐색과정에서 투입되는 비용을 초과하는 기대이득을 가져오는 경

우에 직업탐색을 수행한다는 합리적 선택모형에 기초한다. Berg & Shack-Marquez (1985)의 사회 연결망 이론(Social Network Theory)에서는 직업선택은 개인의 합리적 선택이라는 시각만으로 충분히 이해될 수 없다는 인식에서 출발하여, 노동시장에서 구직을 위해 사용하는 공식적 방법, 비공식적 방법, 직접적인 방법 중 개인적인 접촉을 통한 구직이 성공적인 취업에 매우 효과적이라고 주장하였다. Granovetter(1974, 1995)의 ‘약한 연결의 강함(strength of weak ties)’ 이론은 사회적 네트워크에서 거리가 가까운 사람으로 구성된 강한 연결을 사용하여 취업한 사람보다 약한 연결을 이용하여 취업한 사람이 직업 만족도와 임금 차원에서 더 좋은 직업을 얻었으며, 일자리 정보를 획득함에 있어서도 약한 연결이 가까운 친구나 가족으로 구성된 연결보다 영향력이 크다는 것을 주장하였다. 강한 연결에 속한 사람들의 정보는 상당히 중첩되며 사회에서 거리가 있는 부분에 대한 정보는 제공하기 힘든 반면, 약한 연결은 더 넓은 범위를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국내 연구에서는 2년제 또는 4년제 대학을 졸업한 신규 입직자를 대상으로 분석하였을 때 Granovetter의 ‘약한 연결의 강함’ 주장과 달리 종속변수인 근무조건에는 ‘공식 경로의 강한 연결’이 가장 큰 효과를 냈다(김성락·김재훈, 2014). 이는 한국 사회에서 일자리의 질을 결정하는데 강한 연결이 여전히 강하게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2. 국내 청년고용정책의 전개와 현황

한국 청년 고용문제를 해소하려는 정부의 노력은 1997년 외환위기 직후 기업이 청년층에 대한 신규 채용을 줄이고 청년 실업자가 대량 양산됨에 따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시작되었다. 이후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를 거치면서 청년 고용정책은 다양한 양상을 띠며 발전해왔다(김영재, 2013).

우선 김대중 정부에서는 1997년 외환위기 직후 실업대책의 일환으로 청년고용대책을 추진하였다. 정부는 실업자가 급증함에 따라 1998년 3월 고용유지지원, 새로운 일자리 창출,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 실업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을 기본구조로 한 「종합 실업대책」을 마련하였다. 2000년 들어서는 경기회복과 실업대책에 힘입어 실업률이 크게 감소함에 따라 실업정책의 기본방향을 사회안전망의 확충을 통한 실직자의 생계지원, 고용·실업구조의 개선 및 인력수급 불균형의 해소에 두었다. 2002년에는 실업대책사업을 마무리하고 대상별 특성화된 고용안정대책으로 전환함으로써 그동안의 양적인 실업감소 중심의 정책에서 벗어나 질적인 고용안정대책으로 전환을 꾀하고자 하였

다(고용노동부, 2003).

노무현 정권에서는 당시 많은 청년들이 신용카드 과다사용으로 신용불량자가 되어 취업의 어려움을 동시에 겪자, 2003년 「청년실업종합대책」을 발표하여 취업 애로충과 취업소요기간을 감소시키고 노동시장 수요에 맞게 대학의 구조개혁을 유도하고자 하였다. 이후 우리나라가 선진국형 저성장 산업구조로 재편됨으로써 제조업 중심의 일자리 창출이 한계에 봉착하게 됨에 따라 2005년에는 새로운 「청년고용촉진대책」이 마련되었는데, 이전 종합대책과 달리 중장기 인력수급전망과 중소기업 고용지원을 위한 보조금 지급사업들이 포함되어 있어 진일보된 정책이라 할 수 있다(고용노동부, 2005). 그러나 여러 정책들이 기존 정책을 답습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청년 고용을 위한 적극적 지원정책보다는 소극적 지원정책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지적을 받기도 하였다(김영재, 2013).

이후 이명박 정권에서 청년고용대책은 보다 적극적으로 전개되어 왔다. 2008년 세계금융위기에 따른 국내 경기부진으로 신규채용 둔화가 시작되었으며, 취업애로충이 1백만명을 상회하여 체감실업이 높다는 점에서 대책이 요구되었다. 정부에서는 청년고용활성화를 위해 수요측면에서 청년친화적 일자리 지원을 위한 인턴제, 기업주도적 인턴채용 확대, 민간의 추가채용운동 지원, 분야별 우량중소기업 육성, 청년기업가 육성, 해외취업 확대를 추진하였고, 공급측면에서는 직업 체험프로그램 개편, 한국형 마이스터 양성 등 취업교육 강화, 산업수요에 기반한 인재 양성 등을, 인프라측면에서는 청년 뉴스타트 프로젝트, 고용정보 인프라 확충 및 제공을 제안하였다.

현재 박근혜 정부는 맞춤형 고용·복지를 핵심 국정 과제로 설정하고,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일자리 중심 국정 운영, 맞춤형 취업지원 및 고용서비스망 강화, 청년 고용활성화 등을 구체적인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학교에서 직장까지: 일자리 단계별 청년고용대책」을 통해 일자리 단계별 약한고리를 발굴하고 수요자가 희망하는 대책을 파악하고자 하였고(기획재정부, 2014), 「청년 고용절벽 해소 종합대책」을 발표하여 인력수급 미스매치 해소를 위한 구조적인 대책과 함께 단기간 내 청년 일자리를 확보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고자 하였다(기획재정부, 2015). 이 외에도 청년고용을 늘리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미래창조과학부, 고용노동부 등 다양한 부처에서 막대한 예산을 지원하여 청년고용정책을 추진 중에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정부의 정책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청년층 고용률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정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고학력 취업난에 대한 정확한 원인 진단을 토대로 정책 대상별로 특화된 고용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3. 선행연구 검토

1) 청년층의 노동시장 이행유형에 관한 선행연구

청년층의 노동시장 이행유형에 관한 연구는 크게 고졸자만을 대상으로 유형화한 연구(김안국·신동준, 2007; 김성남·최수정, 2012; 박미경 외, 2016)와 고졸자와 대졸자를 포함하여 청년들을 대상으로 유형화한 연구(박진희·김용현, 2010; 권혁진·유호선, 2011; 문혜진, 2013; 박미희·홍백의, 2014)가 있다. 본 연구는 대졸자만을 대상으로 초기 노동시장 이행과정을 유형화하므로 고졸자만을 대상으로 유형화한 연구는 제외하고 전체 청년들을 중심으로 분석한 연구를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박진희·김용현(2010)은 노동패널조사 1~11차 자료를 통해 1998년부터 2008년까지 개인의 노동시장 이동 및 성과를 장기간 추적 조사하였다. 최적일치법을 적용한 집락분석방법으로 경제활동상태, 종사상 지위, 직업에 따른 경력개발경로유형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경제활동상태별 경력개발경로유형은 ①취업형, ②노동시장유지형, ③노동시장진입형, ④비경제활동형, ⑤노동시장이탈형, ⑥노동시장재진입형, ⑦노동시장진입퇴장반복형으로 도출되었다. 이를 요약하면 경력초기 노동시장에서 안정적으로 경력개발경로를 따르고 있는 비중은 전체의 약 30%이고, 나머지 70%는 경력초기에 노동시장을 퇴장하거나 재진입, 취업, 실업을 반복하는 불안정한 경력개발경로를 따르고 있었으며, 특히 여성의 경우 노동시장퇴장, 노동시장재진입, 노동시장퇴장진입반복 등 불안정한 경로를 보이는 비율이 높았다. 그러나 그러한 유형에 속한 표본들의 특성을 성별, 학력으로만 규명하고 있어 청년들의 대학교 생활 및 구직 행위까지 담지 못해 한계가 있다.

권혁진·유호선(2011)은 청년패널 1차 웨이브의 1차~6차 자료를 활용하여 청년들을 대상으로 최종 학교 졸업 이후 48개월간의 이행과정을 최적일치법과 배열분석을 통해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①니트-정규, ②니트, ③정규, ④니트-정규-니트, ⑤정규-니트 순으로 많은 청년들이 경험하는 이행경로가 도출되었다. 해당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청년층 중 상당수가 졸업 이후 바로 니트 상태를 경험한다고 지적하였으며, 대학 이상 학력을 가진 청년들이 경험하는 이행과정이 고졸 청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다양하고 변동상 또한 높은 것을 규명하였다. 그러나 이 연구 역시 박진희·김용현(2010)의 연구와 마찬가지로 성별, 학력별 차이만을 구분했을 뿐 어떠한 특성을 가진 청년들이 특정 유형에 속하게 되는지는 심층적으로 분석해내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으며, 48개월이라

는 비교적 짧은 기간만을 관측했다는 아쉬움이 있다.

문혜진(2013)은 한국노동패널 자료를 활용하여 72개월간의 노동 경력을 최적일치법에 기초한 배열분석을 이용하여 유형화하였다. 직장 수에 따른 군집은 ①이동형, ②미취업형, ③실직형, ④지속형으로 도출되었고, 사업장 규모에 따른 군집은 ①영세사업장/실직형, ②미취업형, ③무응답군, ④대기업형, ⑤중소기업형으로 도출되었으며, 고용형태에 따른 군집은 ①비정규직형, ②미취업형, ③미취업경과 정규직형, ④실직형, ⑤정규직형, ⑥자영 및 가족종사자형으로 도출되었다. 해당 연구는 외환위기 이전 코호트와 비교하여 외환위기 이후 코호트는 노동시장 진입 과정에서 일자리의 이행기간이 길어지고 일자리의 질적 저하가 발생하였으며, 노동경력 상에서도 이동이 증가하고 실직 기간이 증가하는 등의 고용 불안정성 징후들을 발견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이 연구 역시 각 유형의 특성을 비교분석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박미희·홍백의(2014)는 청년패널 2차 웨이브의 1차~6차 자료를 활용하여 최종 학교 졸업 후 48개월 동안의 노동시장 이행궤적을 추적하고 유형화하였다. 집단중심추세분석을 활용하여 이행궤적을 유형화한 결과, ①노동시장미진입형, ②상급학교진학형, ③장기준비형, ④단기준비형, ⑤불안정노동형, ⑥상용이탈형, ⑦상용지속형으로 도출되었다. 해당 연구는 각 이행유형을 결정하는 요인이 무엇인지 규명했다는 점에서 기존의 연구들과 차별성을 갖지만, 복잡하고 다양하게 이루어지는 구직 행위를 직업훈련 여부, 자격증 보유 여부, 구직정보 취득 경로 등으로 지나치게 단순화하여 정교하게 분석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이를 종합하면, 청년층의 노동시장 이행유형을 분석한 기존의 연구는 대졸자로 한정하여 분석한 연구는 없으며, 미취업자로 대상을 한정하여 분석한 연구도 없었다. 또한 노동시장 이행유형의 특성 분석을 인구통계학적 변수, 가구 변수의 비교 분석에 그쳤으며, 청년의 취업노력 변수를 반영한 박미희·홍백의(2014) 연구에서도 훈련 경험, 자격증 수, 구직 경로, 대학 위세도 정도에 그쳐 복잡다단하게 이루어지는 대졸 청년들의 구직 행위를 충분히 담아내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연구에서 이루어지지 않았던 대졸 미취업자의 노동시장 이행유형을 규명하고 각 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확인하고자 한다.

2) 본 연구의 차별성

본 연구는 연구 대상, 연구 내용, 연구 방법 측면에서 기존의 연구들과 다음과 같은 차별성을 갖는다. 첫째, 연구 대상 측면에서 본 연구는 2·3년제 전문대 졸업생과 4년제 이상 대학 졸업생으로 한정한다. 대부분의 기존 연구들은 학력으로 분석 대상을 제한하지 않고 전체 청년층을 대상으로 유형화를 시도하였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고학력자의 실업이 심각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전문대졸 이상의 고학력자만을 대상으로 초기 노동시장 이행과정을 살펴보는 것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청년 실업 문제가 만성화되어가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미취업자를 분석 대상으로 한정하여 노동시장에 어떻게 유입되고 어떻게 니트화되는지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연구 내용 측면에서 본 연구는 청년들이 구직을 위해 노력한 행위까지 모두 반영하여 분석한다. 대부분의 기존의 연구들은 단순한 인구통계학적 변수로 유형에 대한 해석을 시도하였다. 그러나 인구통계학적인 변수만을 이용하여 유형을 해석할 경우, 성별, 학력 등에 따른 유형 차이를 언급하는데 그치므로 정책 대상자인 청년들에 대한 정책을 모색하는데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대학 재학 시절 구직행위에 대한 분석까지 포함하여 초기 노동시장에 어떻게 정착하는지 그 양상을 분석함으로써 보다 구체적이고 완전한 분석을 시도하여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연구방법 측면에서 본 연구는 집단중심추세분석(Group Based Trajectory Model)을 사용하여 유형화를 시도한다. 지금까지의 연구는 배열 분석, 군집 분석, 집락 분석 등을 중심으로 분석해왔다. 그러나 배열분석은 노동시장 이행과정을 매우 구체적으로 기술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사전에 연구자에 의해 정의된 전환비용에 기초하여 배열간 거리가 계산되기 때문에 자의적이고 주관적이며(Levine, 2000; Wu, 2000), 기술적 분석과 설명에 치중하여 한 경로가 다른 경로와 질적으로 유의하게 다른 것인지에 대한 통계적 판단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민현주, 2012). 또한 수많은 배열에서 대표적 유형을 찾아내기 위해 배열분석은 군집분석을 활용하지만, 군집분석으로는 궤적의 수나 함수형태가 타당한지에 대한 통계적 검증을 할 수 없다(Hynes and Clarkberg, 2005). 반면, 집단중심추세분석은 집단 수 변화에 따른 적합도를 보여주므로 연구자의 자의적인 판단에 근거한 것이 아닌 통계적으로 가장 적합한 집단을 규명해 낼 수 있다는 점에서 배열분석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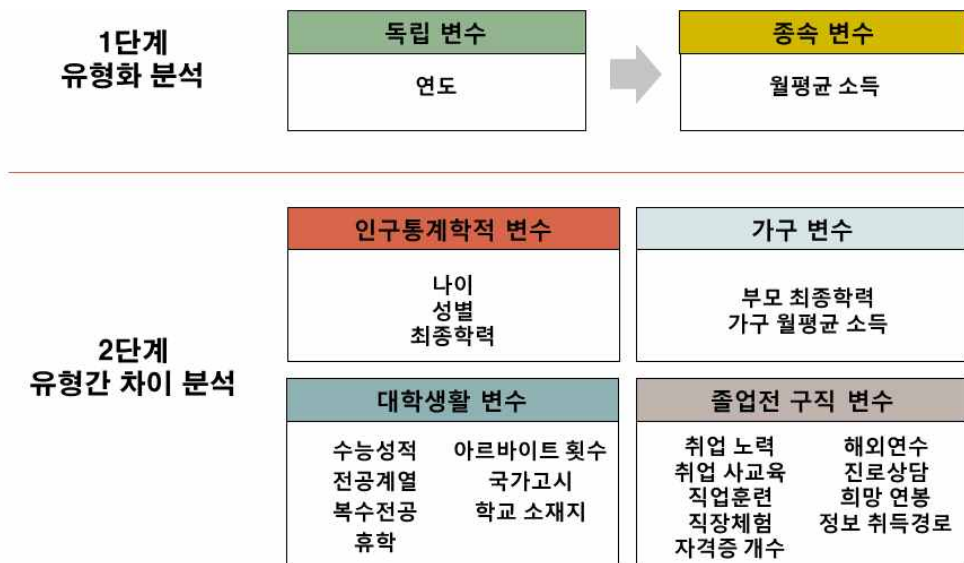
Ⅲ. 연구 설계

1. 연구 모형 및 연구 질문

1) 연구 모형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토대로 <그림 1>과 같은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모형은 2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첫 번째 단계는 청년 대졸 미취업자의 대학 졸업 이후 노동시장 이행 유형화 단계이다. 2·3년제 전문대와 4년제 이상 대학교 졸업자를 대상으로 졸업 이후 노동시장 이행 유형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1단계 연구모형의 독립변수는 시간이며, 종속변수는 월평균 소득 수준으로 구성된다. 두 번째 단계는 노동시장 이행 유형의 특성 분석 단계이다. 2단계 연구모형에서 분석 변수는 인구통계학적 변수, 가구 변수, 대학생활 변수, 졸업 전 구직 변수로 구성된다.

<그림 1> 연구모형



2) 연구 질문

본 연구의 질문은 앞서 살펴본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설정하였다. 첫째, 위에서 제시한 연구모형에서 독립 변수인 연도에 따라 종속 변수인 월평균 소득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기존에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시장 이행유형을 분석한 선행연구

구에서는 노동시장에 진입하지 못하는 유형,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유형, 노동시장에 진입하였다가 이탈하는 유형을 공통적으로 도출하고 있으므로(박진희·김용현, 2010; 권혁진·유호선, 2011; 문혜진, 2013), 대졸 미취업자로 한정하여 분석하는 본 연구에서는 어떤 유형이 나타나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둘째, 1단계 연구모형에 따라 도출된 노동시장 이행 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 질문을 설정한다. 청년층의 노동시장 이행유형을 분석한 박진희·김용현(2010)과 권혁진·유호선(2011)은 성별과 학력에 따른 유형간 차이를 확인하였고, 박미희·홍백의(2014)는 인구통계학적 변수, 가구 변수와 더불어 자격증 여부, 훈련 경험 여부를 포함한 취업 준비 노력을 반영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연구에서 사용된 변수를 인구통계학적 변수, 가구 변수, 대학생활 변수, 졸업 전 구직 변수로 구분 및 세분화하여 각 변수들이 노동시장 이행유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규명하고자 한다. 이에 따른 본 연구의 질문은 다음과 같다.

연구질문 1. 시간의 흐름에 따른 노동시장 이행유형은 어떤 유형으로 도출되는가?

연구질문 2. 인구통계학적 변수, 가구 변수, 대학생활 변수, 졸업 전 구직 변수에 따라 노동시장 이행유형은 다르게 나타나는가?

2.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1) 자료 수집 및 연구 대상

본 연구에서는 청년 대졸자의 노동시장 이행유형을 분석하기 위해 청년패널조사(YP2007) 1차년도(2007년)부터 8차년도(2014년)까지 8개년의 자료를 이용하였다. 청년패널조사는 청년층의 학교생활, 사회·경제활동, 가계배경 등을 반영하는 기초 자료를 수집하여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고용정책의 수립 및 관련 연구 발전에 기여할 목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2007년 새롭게 구축된 청년패널조사에서는 전국 청년 거주 가구를 대상으로 표본을 구축하여 만 15~29세(2007년 기준) 청년층 10,206명을 조사하였으며, 이후 매년 추적조사를 하여 2013년 7차 추적조사까지 74.0%의 표본유지율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청년패널 데이터의 표본과 설문문항이 본 연구에 적합하다고 판단하였으며, 이에 본 연구에서는 조사연도 당시 2년제 및 4년제 대학을 졸업한 응답자를 대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데이터 분석을 위한 연구 대상 추출 과정은 다음과 같다. 우선 총 8년간의

청년패널 자료를 토대로 대학교를 졸업한 해로부터 4년 동안의 데이터를 병합하였다. 대학 졸업 후 노동시장 이행경로를 살펴보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분석의 정확성은 향상되는 장점이 있으나 이렇게 엄격한 기준을 만족시키는 표본 수가 급격하게 감소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대학 졸업 후 4년을 분석기간으로 선택하였다. 즉, 2007년 대학생인 표본을 대상으로 졸업연도인 2008년도부터 2011년의 데이터를 병합(merge)하였으며, 마찬가지로 2008년, 2009년, 2010년 대학생인 표본을 대상으로 각각 4개연도의 자료를 병합하였다. 이렇게 병합한 데이터를 토대로 2007년 대학생 표본, 2008년 대학생 표본, 2009년 대학생 표본, 2010년 대학생 표본을 결합(append)하였다. 2007년 대학생 표본은 119명, 2008년 대학생 표본은 132명, 2009년 대학생 표본은 104명, 2010년 대학생 표본은 87명이며, 총 결합한 표본 수는 442명이다.

2) 연구 변수의 조작적 정의

본 연구는 노동시장 이행유형 분석과 도출된 유형간 차이 분석을 통해 2단계에 걸쳐 분석을 실시하므로 이에 대한 측정도구 역시 두 가지로 구분된다. 1차 분석 모형인 집단중심추세분석에서의 독립변수는 관측연도이며, 종속변수는 청년 대졸자의 월평균 소득이다. 독립변수는 졸업한 해로부터 총 4년이며, 종속변수는 소득이 없는 경우 0, 소득이 1~50만원인 경우 1, 51~100만원인 경우 2, 101~150만원인 경우 3, 151~200만원인 경우 4, 201~250만원인 경우 5, 251~300만원인 경우 6, 301~350만원인 경우 7, 351만원 이상인 경우 8로 코딩하여 총 0에서 8까지의 범주로 구분하였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의 <표 1>과 같다.

〈표 1〉 집단중심추세분석 변수의 정의 및 측정

구분	변수	측정
독립변수	연도	졸업한 해=1, 졸업 1년 후=2, 졸업 2년 후=3, 졸업 3년 후=4
종속변수	월평균 소득	소득 없음=0, 1~50만원=1, 51~100만원=2, 101~150만원=3, 151~200만원=4, 201~250만원=5, 251~300만원=6, 301~350만원=7, 351만원 이상=8

2차 분석 모형에서는 크게 인구통계학적 변수, 가구 변수, 대학생활 변수, 졸업 전 구직 변수로 총 4가지 변수에 대하여 유형간 차이를 분석한다. 인구통계학적 변수는 대학 졸업 직전 연도의 나이, 성별, 최종학력으로 구성하였고, 가구 변수는 부모 중 가장 높은 최종학력, 가구 월평균 소득으로 구성된다. 대학생활 변수는 수능성적, 전공계

열, 복수전공 유무, 휴학 경험 유무, 아르바이트 횟수, 국가고시 등 준비 여부, 학교 소재지로 구성하였다. 대학 졸업 전 구직 변수는 취업 사교육 횟수, 직업교육훈련 여부, 직장체험 프로그램 여부, 자격증 개수, 해외연수 및 유학 여부, 진로지도 및 상담 여부, 희망 연봉, 정보 취득경로로 구성된다. 취업노력 변수는 취업을 위해 사설학원에서 교육을 받았는지, 직업적성·흥미검사를 받아본 적이 있는지, 면접 훈련을 받아본 적이 있는지, 인턴을 경험했는지 등 12가지 척도를 종합하여 1가지의 노력도 하지 않은 경우 0, 12가지의 노력을 모두 한 경우 12로 측정하였다. 이와 같은 변수의 정의 및 측정 방법을 정리하면 <표 2>와 같다.

〈표 2〉 유형간 차이 분석 변수의 정의 및 측정¹⁾

구분	변수	측정
인구통계학적 변수	나이	연속변수
	성별	남성 / 여성
	최종학력	전문대졸 / 대졸 / 대학원 이상
가구 변수	부모 최종학력	중졸 이하 / 고졸 / 전문대졸 / 대졸 이상
	월평균소득	연속변수
대학생활 변수	수능성적	상위권 (~10%) / 중상위권 (11~30%) / 중위권 (31~70%) / 중하위권 (71~90%) / 하위권 (91~100%)
	전공계열	인문계열 / 사회계열 / 자연계열 / 공학계열 / 의약학계열 / 교육계열 / 예체능계열
	복수전공	있음 / 없음
	휴학	경험 / 미경험
	아르바이트 횟수	연속변수
	국가고시	해당 / 비해당
	학교 소재지	서울 비서울
졸업 전 구직 변수	취업노력 횟수	연속변수
	취업 사교육 횟수	연속변수
	직업교육훈련	경험 / 미경험
	직장체험프로그램	경험 / 미경험
	자격증 개수	연속변수
	해외연수 및 유학	경험 / 미경험
	진로지도 및 상담 횟수	연속변수
	희망 연봉	연속변수
	정보 취득경로	공식경로 / 비공식경로

1) 수능성적, 전공계열, 복수전공, 휴학, 학교 소재지, 희망연봉, 정보 취득경로의 결측치는 Stata 13.0에서 ice 명령어를 이용하여 단순대치법으로 대체하였다.

3) 분석방법

본 연구의 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다. 1단계 분석에서는 집단중심추세분석(Group Based Trajectory Model, GBT)을 이용하여 전문대 졸업자 및 대학교 졸업자가 대학을 졸업한 해로부터 4년 동안의 노동시장 이행과정을 유형화한다. 집단중심추세분석은 종속변수가 절단정규분포(censored normal distribution), 포아송 분포(poisson distribution), 이항로짓분포(binary logit distribution)일 때 적용가능한데(Jones & Nagi, 2012), 본 연구에서는 종속변수인 월평균 소득이 0에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으므로 포아송 분포 모형으로 설정하여 분석을 실시하고자 한다. 그 다음 2단계 분석에서는 집단중심추세분석을 통해 도출된 유형에 대하여 유형간 차이 검증을 실시함으로써 각 유형의 특성을 규명한다. 네 유형의 차이 검정에는 카이제곱검정과 분산분석을, 두 유형의 양자간 차이 검증에는 카이제곱검정과 T검정을 실시하고자 한다.

Ⅳ. 분석 결과

1. 집단중심추세분석 결과

1) 적합도 검정

집단중심추세분석을 실시하기 위하여 종속변수인 월평균 소득을 총 8개의 구간으로 나누고 독립변수는 졸업한 해로부터 4년을 설정하였다. 졸업 후 4년간의 월평균 임금을 3차 함수로 추정하였고, 1개 유형부터 유형 수를 1개씩 늘려가며 도출된 각 모형별 적합도를 토대로 4유형 모형을 최종 모형으로 선택하였다. 적합도 지수는 다음의 <표 4>와 같으며, 1유형인 경우 BIC값(N=442)은 -3084.21, 2유형인 경우 -2481.9, 3유형인 경우 -2357.19, 4유형일 경우 -2284.06로 적합도의 절대값이 점차 감소하다가 5유형일 때 -2295.23으로 상승함을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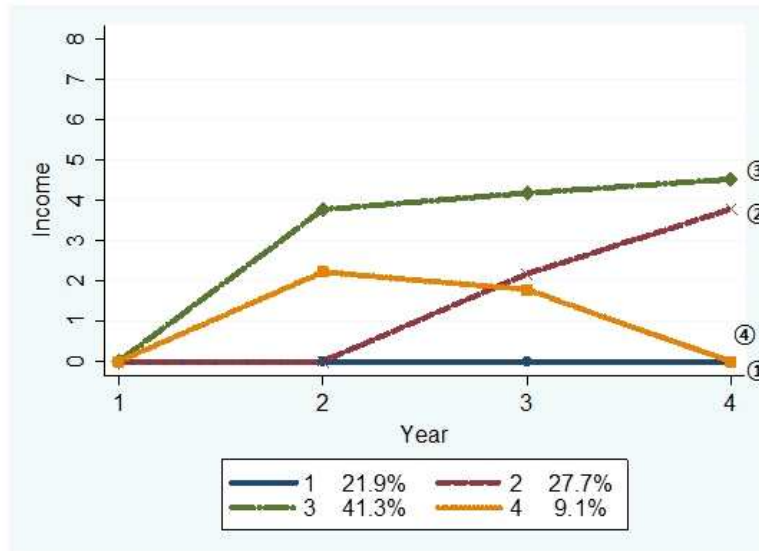
〈표 4〉 유형 수 변화에 따른 적합도

유형 수	BIC		AIC	Log-Likelihood
	N=1768	N=442		
1	-3086.98	-3084.21	-3076.02	-3072.02
2	-2488.14	-2481.9	-2463.49	-2454.49
3	-2366.9	-2357.19	-2328.55	-2314.55
4	-2297.23	-2284.06	-2245.19	-2226.19
5	-2311.87	-2295.23	-2246.14	-2222.14

2) 임금 궤적 추정

전문대졸 및 대졸 청년의 초기 노동시장 이행을 유형화하기 위하여 집단중심추세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의 〈그림 2〉과 같다. 4년간의 노동시장 이행유형은 총 4가지이며, 대학을 졸업한 해에 미취업자인 청년을 대상으로 분석 표본을 설정하였으므로 1번째 연도에는 네 가지 유형 모두 소득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게 된다. 4개 유형을 자세히 살펴보면, 졸업 후 4년 동안 소득이 전혀 없는 유형이 21.9%, 졸업 후 2번째 연도까지 소득이 없다가 점차 상승하는 유형이 27.7%를 차지한다. 졸업 후 2번째 연도부터 소득이 발생하여 4개의 유형 중 가장 높은 소득을 얻는 유형이 41.3%, 2번째 연도부터 바로 소득이 발생하였으나 이내 4번째 연도에서 소득이 없어지는 유형이 9.1%를 차지한다. 즉, 졸업 후 4번째 연도에 소득이 전혀 없는 유형은 노동시장에 성공적으로 정착하지 못한 유형으로 첫 번째 유형과 네 번째 유형을 합한 비율인 전체의 31%이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집단중심추세분석을 통해 도출된 유형을 각각 ‘니트형’, ‘느린 노동시장 진입형’, ‘빠른 노동시장 진입형’, ‘노동시장 이탈형’으로 명명하고자 한다. 한편, 이러한 유형은 선행연구에서 도출되었던 ‘니트형’, ‘노동시장 진입형’, ‘노동시장 이탈형’에서 ‘노동시장 진입형’이 ‘느린 노동시장 진입형’과 ‘빠른 노동시장 진입형’으로 세분화됨을 확인하였다.

〈그림 2〉 대졸 미취업자의 4년간 임금궤적



2. 노동시장 이행유형의 특성

1) 노동시장 이행유형 간 차이 검정

집단중심추세분석에서 도출된 유형의 성격을 파악하기 위하여 유형 간 차이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분석 결과를 다음의 <표 5>로 정리하였다. 분석 결과, 본인 최종학력, 전공계열, 아르바이트 횟수, 취업노력, 취업 사교육 횟수, 자격증 개수, 진로상담 횟수, 희망 연봉이 네 유형 간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결과를 요약하자면 졸업 후 4년 내내 소득이 없는 유형 1은 본인 최종학력이 두 번째로 높고, 전공계열은 인문사회계열이 가장 많으며, 아르바이트 횟수는 두 번째로 적고, 취업노력정도는 두 번째로 낮았다. 또한 취업사교육 횟수는 두 번째로 많았으며, 자격증은 네 유형 중 가장 많았다. 진로 지도 및 상담횟수는 네 유형 중 가장 많았으며, 희망연봉은 두 번째로 높았다. 즉, 4년 동안 노동시장에 진입하지 못한 유형 1은 학력이 낮거나 구직 준비를 하지 않은 유형이 아니라, 오히려 취업사교육 횟수, 자격증 수, 진로 지도 및 상담횟수로 볼 때 졸업 전 구직을 위해 나름대로 준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시장에 진입하지 못하고 있는 집단으로 보인다.

졸업 후 2번째 해까지 소득이 없다가 3년차부터 점차 노동시장에 안정적으로 정착

하는 유형 2는 본인 최종학력의 경우 네 유형 중 가장 높으며, 전공계열은 공학계열이 가장 많았으며, 취업 노력정도는 네 유형 중 두 번째로 높았고, 취업 사교육 횟수는 두 번째로 낮았다. 자격증 개수와 진로지도 및 상담횟수는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었으며, 희망연봉은 네 유형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학력, 취업노력 정도, 희망연봉 수준이 높지만 비교적 늦게 노동시장에 진입한 유형이다.

졸업한 해에 미취업자였으나 이후 네 유형 중 가장 빠르게 노동시장에 정착하는 유형 3은 최종 학력이 네 유형 중 2번째로 낮았으며, 전공계열은 사회계열, 공학계열, 예체능계열이 상대적으로 많았으며, 아르바이트 횟수는 두 번째로 많았다. 취업노력은 네 유형 중 가장 높은 수준이었고, 취업 사교육 횟수 역시 가장 많은 수준이었다. 자격증 개수와 진로지도 및 상담횟수와 희망연봉은 네 유형 중 두 번째로 낮은 수준이었다. 즉, 대졸 미취업자의 네 가지 유형 중 학력이 높은 수준은 아니지만 취업노력, 취업사교육 등 졸업 전 구직을 위해 가장 많은 노력을 한 것으로 파악된다.

졸업 한 후 두 번째 해에 노동시장에 진입하나 네 번째 해에 노동시장에서 퇴장하는 유형 4는 학력이 네 유형 중 가장 낮았으며 전공계열은 자연계열과 예체능 계열이 네 유형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아르바이트 횟수는 네 유형 중 가장 많았다. 반면, 취업노력, 취업 사교육 횟수, 자격증 개수, 진로지도 및 상담 횟수, 희망연봉은 네 유형 중 가장 적은 수준이었다. 다시 말해 유형 4는 학력과 졸업 전 구직 준비 정도가 네 유형 중 가장 낮은 수준이었으며, 이는 노동시장에서 퇴장하는데 다소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짐작된다.

이상으로 네가지 유형에 대한 비교분석을 통해 각 집단의 특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네 가지 유형을 비교분석하는 것만으로는 각 유형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를 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인다. 이에 각 유형에 적합한 정책적인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유형 간 비교를 통해 맞춤형 진단을 할 필요가 있겠다. 구체적으로, 유형 1은 구직 준비를 했음에도 4년 동안 노동시장에 진입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지, 유형 2는 노동시장에 늦게 진입하게 된 원인은 무엇인지, 유형 3은 어떻게 노동시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었는지, 유형 4는 노동시장을 이탈하게 된 원인이 무엇인지 면밀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표 5〉 네 유형의 특성 비교

변수	범위	니트형 (유형 1)		느린 노동시장 진입형 (유형 2)		빠른 노동시장 진입형 (유형 3)		노동시장 이탈형 (유형 4)		Chi2 / ANOVA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나이	평균(표준편차)	24.32(2.32)		24.65(2.22)		24.78(2.38)		23.77(2.28)		0.73 (0.865)
성별	여성	61	62.24	67	55.37	87	49.71	31	64.58	5.78 (0.123)
	남성	37	37.76	54	44.63	88	50.29	17	35.42	
본인 최종학력	전문대졸	21	21.43	22	18.18	49	28	15	31.25	12.40* (0.054)
	대졸 이상	75	76.53	99	81.82	126	72	33	68.75	
	대학원 이상	2	2.04	0	0	0	0	0	0	
부모 최종학력	중졸 이하	11	11.22	10	8.26	28	16	4	8.33	10.03 (0.348)
	고졸	48	48.98	68	56.2	97	55.43	24	50	
	전문대졸	10	10.2	8	6.61	10	5.71	6	12.5	
	대졸 이상	29	29.59	35	28.93	40	22.86	14	29.17	
월평균 가구소득	평균(표준편차)	8.14(1.51)		8.19(1.24)		8.02(1.41)		8.18(1.33)		4.55 (0.208)
수능성적	상위권	17	17.35	12	9.92	29	16.57	4	8.33	16.57 (0.167)
	중상위권	35	35.71	53	43.8	59	33.71	17	35.42	
	중위권	38	38.78	47	38.84	57	32.57	21	43.75	
	중하위권	7	7.14	9	7.44	28	16	5	10.42	
	하위권	1	1.02	0	0	2	1.14	1	2.08	
전공 계열	인문계열	19	19.39	17	14.05	19	10.86	5	10.42	37.89*** (0.004)
	사회계열	32	32.65	28	23.14	58	33.14	14	29.17	
	자연계열	11	11.22	15	12.4	16	9.14	10	20.83	
	공학계열	13	13.27	38	31.4	39	22.29	6	12.5	
	의/약학계열	2	2.04	2	1.65	10	5.71	1	2.08	
	교육계열	11	11.22	10	8.26	8	4.57	1	2.08	
	예체능계열	10	10.2	11	9.09	25	14.29	11	22.92	
복수전공	없음	78	79.59	106	87.6	151	86.29	45	93.75	6.00 (0.112)
	있음	20	20.41	15	12.4	24	13.71	3	6.25	
휴학	미경험	44	44.9	47	38.84	70	40	23	47.92	1.79 (0.617)
	경험	54	55.1	74	61.16	105	60	25	52.08	
아르바이트 횟수	평균(표준편차)	1.714(2.80)		1.71(1.74)		2.09(2.03)		2.48(3.19)		41.50*** (0.000)
취업고시, 국가고시, 전문시험 준비	없음	63	64.29	87	71.9	123	70.29	36	75	2.31 (0.512)
	있음	35	35.71	34	28.1	52	29.71	12	25	
학교 소재지	비서울	78	79.59	100	82.64	137	78.29	41	85.42	1.69 (0.638)
	서울	20	20.41	21	17.36	38	21.71	7	14.58	
취업노력	평균(표준편차)	1.08(1.84)		1.15(2.04)		1.71(2.51)		0.94(1.83)		16.38*** (0.001)
취업 사교육 횟수	평균(표준편차)	0.35(0.69)		0.27(0.59)		0.47(0.91)		0.25(0.73)		27.04*** (0.000)
직업교육 훈련	미경험	92	93.88	118	97.52	168	96	46	95.83	1.84 (0.605)
	경험	6	6.12	3	2.48	7	4	2	4.17	
직장체험 프로그램	미경험	93	94.9	117	96.69	163	93.14	43	89.58	3.64 (0.303)
	경험	5	5.1	4	3.31	12	6.86	5	10.42	
자격증 개수	평균(표준편차)	1.14(1.55)		0.95(1.19)		0.94(1.27)		0.67(.93)		16.94*** (0.001)
해외연수 및	미경험	85	86.73	106	87.6	154	88	44	91.67	0.78

변수	범위	니트형 (유형 1)		느린 노동시장 진입형 (유형 2)		빠른 노동시장 진입형 (유형 3)		노동시장 이탈형 (유형 4)		Chi2 / ANOVA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유학	경험	13	13.27	15	12.4	21	12	4	8.33	(0.855)
진로지도 및 상담 횟수	평균(표준편차)	1.24(2.32)		1.04(1.43)		1(1.31)		0.85(1.13)		58.86*** (0.000)
희망연봉	평균(표준편차)	2557.14(759.27)		2578.51(782.11)		2494.29(629.42)		2466.67(735.81)		8.03** (0.045)
정보 취득경로	공식경로	42	42.86	64	52.89	87	49.71	19	39.58	3.77 (0.288)
	비공식경로	56	57.14	57	47.11	88	50.29	29	60.42	
총합		98(명)	22.17(%)	121(명)	27.38(%)	175(명)	39.59(%)	48(명)	10.86(%)	

*p<0.1, **p<0.05, ***p<0.01

2) 양자 간 유형 비교분석

대졸 미취업자에 대한 집단중심추세분석을 통해서 미취업자들의 노동시장 이행과정이 획일적이 않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다음의 세 가지 양자 간 유형 비교(유형 1과 유형 2, 유형 2와 유형 3, 유형 3과 유형 4)를 통해 대학 졸업 당시 같은 미취업상태였으나 다른 노동시장 진출과정을 경험하게 되는 요인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를 도모하고자 한다. 첫째, 유형 1과 유형 2를 비교하는 이유는 유형 1의 장기간 미취업 이유를 확인하기 위함이다. 유형 1은 관측기간인 4년 동안 연속해서 소득이 없는 유형이며, 유형 2는 유형 1과 마찬가지로 졸업 후 두 번째 연도까지 소득이 없다가 그 이후부터 뒤늦게 취업하여 소득이 발생하는 유형이다. 둘째, 유형 2와 유형 3의 비교는 두 집단 간 노동시장 진입 시기상 차이 및 소득 상승률 차이를 규명하고 미취업 탈출에 대한 시사점을 얻고자 함이다. 유형 3은 졸업 후 두 번째 연도부터 소득이 발생하여 4년 동안 가장 높은 소득을 얻는 유형인 반면, 유형 2는 졸업 후 2년 정도 소득이 없다가 취업 후 가파르게 소득이 증가하여 네 번째 연도에 유형 3의 소득을 따라 잡는 집단이다. 마지막으로, 유형 4는 유형 3과 함께 졸업 후 두 번째 연도부터 소득이 발생하였으나 이내 소득이 감소하며 졸업 후 네 번째 연도에는 소득이 없는 유형으로 노동시장으로부터 이탈하는 집단이다. 이 유형을 유형 3과 비교함으로써 유형 4에 대한 정책적 지원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1) 유형 1과 유형 2의 특성 비교

첫 번째로 유형 1과 유형 2의 차이는 유형 2가 결국에는 미취업 상태를 탈출한다는 점인데, 청년층의 취업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설명하는 이론은 인적자본이론,

신호이론, 통계적 차별이론, 직업탐색이론, 사회적 연결망 이론이 있다. 각각의 이론에 대한 변수들을 바탕으로 유형 1과 유형 2의 특성을 비교하면 다음의 <표 6>과 같다. 분석 결과, 성별, 연령, 최종학력, 자격증 수, 직업훈련, 직장체험프로그램, 취업 사교육 횟수, 취업노력, 해외연수, 희망연봉, 정보 취득경로 중 자격증 수만이 1% 수준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유형 1의 자격증 수는 평균 약 1.14개이고 유형 2의 자격증 수는 평균 0.95개로 유형 1이 취득한 자격증 수가 유형 2가 취득한 자격증 수보다 많았다. 이는 자격증을 취득함으로써 인적자본 형성에 영향을 미쳐 취업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인적자본이론이나 자격증이 높은 생산성을 신호한다는 신호이론과 상반된 결과이다.

<표 6> 유형 1과 유형 2의 특성 비교 (1) 인구통계학 변수 및 졸업전 구직변수

변수	범위	니트형 (유형 1)	느린 노동시장 진입형 (유형 2)	chi2 /T-test
성별	여성	61	67	1.0532 (0.305)
	남성	37	54	
연령	평균 (표준편차)	24.31633 (2.318002)	24.64463 (2.216828)	0.2133 (0.644)
최종학력	전문대졸	21	22	2.9506 (0.229)
	대졸	75	99	
	대학원	2	0	
취업노력	평균 (표준편차)	1.081633 (1.837039)	1.14876 (2.043939)	1.2049 (0.272)
취업사교육횟수	평균 (표준편차)	.3469388 (.6901672)	.2727273 (.591608)	2.5531 (0.110)
직업교육훈련	미경험	92	118	1.8236 (0.177)
	경험	6	3	
직장체험 프로그램	미경험	93	117	0.4433 (0.506)
	경험	5	4	
자격증 수	평균 (표준편차)	1.142857 (1.546529)	.9504132 (1.189196)	7.4238*** (0.006)
해외 연수	미경험	85	106	0.0366 (0.848)
	경험	13	15	
희망연봉	평균 (표준편차)	2557.143 (759.2726)	2578.512 (782.1132)	0.0936 (0.760)
정보 취득경로	공식경로	42	64	2.1834 (0.140)
	비공식경로	56	57	

*p<0.1, **p<0.05, ***p<0.01

앞에서 취업여부를 설명하는데 흔히 사용되는 변수들이 유형 1과 유형 2의 근본적인 차이를 규명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구직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추가적으로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우선 구직 관련 심리적 요인에 관한 연구로 Saks & Ashforth(1999)는 자기효능감(self-efficacy)이 준비적 구직행위, 적극적 구직행위, 구직강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며 학생들의 자기효능감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 개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또한 국내의 연구에서도 이와 비슷한 연구가 많은데, 긍정심리자본(자기효능감, 희망, 낙관성, 복원력)의 중요성을 강조한 연구(김주섭, 2015) 및 구직자가 원하는 직무와 직업에 대한 명확한 생각을 가지고 자기 능력에 대한 믿음이 강해야 구직활동을 원활하게 할 수 있다고 하는 연구가 존재한다(유일·김소라, 2013; 장수현·유성경, 2014). 이러한 선행연구 결과에 따라 ‘자기효능감’과 ‘구직효능감’을 변수화하고 유형 1과 유형 2 간 비교를 다음의 <표 7>에서 하였다. 자기효능감은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잘못되고 있다고 생각되면 빨리 바로 잡을 수 있다”, 구직효능감은 “어떻게 하면 나의 적성에 잘 맞는 직장을 구할 수 있는지 알고 있다”라는 질문으로 물었을 때 6점 리커트 척도인 전혀 그렇지 않다(1)~매우 그렇다(6)로 측정하였다. 그러나, 두 변수 모두 통계적으로 유형간 차이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7> 유형 1과 유형 2의 특성 비교 (2) 심리 변수

변수	범위	니트형 (유형 1)	느린노동시장 진입형 (유형 2)	chi2 / T-test
자기효능감	평균 (표준편차)	4.061224 (1.003256)	3.663265 (1.12097)	0.0088 (0.925)
구직효능감	평균 (표준편차)	3.991736 (1.012389)	3.77686 (1.068391)	0.2472 (0.619)

*p<0.1, **p<0.05, ***p<0.01

다음으로, 유형 1과 유형 2사이에 구직행위 관련 심리적인 특성의 차이가 없으므로 구직행위 자체에 초점을 맞추어 취업 희망 여부, 구직 여부, 구직횟수를 비교하였다. 취업 희망여부는 조사일 기준으로 지난주에 직장이나 일자리를 원했는지, 구직 여부는 최근 1개월 내 직장을 구해본적이 있는지, 구직 횟수는 응답자가 구직했다고 응답한 기간 동안 총 구직을 시도한 횟수는 몇 번인지로 묻는 문항으로 측정하였다. 또한 유형 1과 유형 2는 2차년도까지 동일하게 미취업자였으므로 1차년도와 2차년도를 함께 비교하

고자 하였다. 세 변수에 대해 유형 간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의 <표 8>과 같다.

<표 8> 유형 1과 유형 2의 특성 비교 (3) 졸업 후 구직 변수

변수	기간	범위	니트형 (유형 1)	느린노동시장 진입형 (유형 2)	chi2 /T-test
1주내 취업 희망여부	1차년도	있음	85	100	0.6907 (0.406)
		없음	13	21	
	2차년도	있음	78	92	0.3948 (0.530)
		없음	20	29	
1개월내 구직여부	1차년도	있음	19	41	5.7205** (0.017)
		없음	79	80	
	2차년도	있음	12	30	4.1881** (0.041)
		없음	72	84	
구직 횟수	1차년도	평균 (표준편차)	.8877551 (3.065884)	2.429752 (8.321485)	87.3414*** (0.000)
	2차년도	평균 (표준편차)	.5408163 (1.81158)	2.710744 (10.67508)	219.5149*** (0.000)

*p<0.1, **p<0.05, ***p<0.01

분석 결과, 취업 희망여부에는 유형 간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으나, 구직여부와 구직 횟수에는 유형 간 차이가 유의미했다. 최근 1개월내 구직 여부는 유의확률 5%에서 유의미했으며 1차년도와 2차년도 모두 유형 2가 유형 1보다 구직을 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직 횟수는 유의확률 1%에서 유의미했으며 구직여부와 마찬가지로 1차년도와 2차년도 모두에서 유형 2가 유형 1보다 구직 횟수가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유형1과 유형2는 미취업상태일 때 취업 희망여부에는 차이가 없지만, 실제로 구직을 하는지 여부와 얼마나 자주 구직을 했는지는 차이가 있었으며, 이러한 적극적인 구직행동의 차이가 3차년도 이후의 취업 성과의 차이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2) 유형 2와 유형 3의 특성 비교

유형 2와 유형 3의 차이는 미취업 상태에 머무른 기간인데, 유형 3은 졸업한 바로 다음 해인 두 번째 관측연도부터 취업하여 소득이 발생한 반면, 유형 2는 졸업한 후 2년이 지난해인 세 번째 관측연도부터 소득이 발생하였다. 일반적으로 미취업 기간을 설명하는 이론은 유형 1과 유형 2의 비교에서 설명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인적자본이론, 신호이론, 통계적 차별이론, 직업탐색이론, 사회적 연결망 이론이 있으며, 해당 이론들

이 설명하는 변수들을 비교해보고자 한다. 또한 유형 2와 유형 3의 소득이 네 번째 관측연도부터는 비슷해지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실제 비슷한 노동시장에 속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노동시장 분절이론에서 설명하는 기업규모, 직종, 고용형태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상의 변수들을 비교분석하면 다음의 <표 9>와 같다.

<표 9> 유형 2와 유형 3의 특성 비교

변수	범위	느린노동시장 진입형 (유형 2)	빠른노동시장 진입형 (유형 3)	chi2 /T-test
성별	여성	67	87	0.9174 (0.338)
	남성	54	88	
연령	평균 (표준편차)	24.64463 (2.216828)	24.77714 (2.380849)	0.7143 (0.398)
최종학력	전문대졸	22	49	3.7821* (0.052)
	대졸	99	126	
	대학원	0	0	
취업노력	평균 (표준편차)	1.14876 (2.043939)	1.714286 (2.514)	5.8747** (0.015)
취업 사교육횟수	평균 (표준편차)	.2727273 (.591608)	.4742857 (.9085617)	24.0819*** (0.000)
직업교육훈련	미경험	118	168	0.5068 (0.477)
	경험	3	7	
직장체험 프로그램	미경험	117	163	1.7645 (0.184)
	경험	4	12	
자격증 수	평균 (표준편차)	.9504132 (1.189196)	.9371429 (1.264703)	0.532 (0.466)
해외 연수	미경험	106	154	0.0105 (0.918)
	경험	15	21	
희망연봉	평균 (표준편차)	2578.512 (782.1132)	2494.286 (629.4236)	6.8046*** (0.009)
정보 취득경로	공식경로	64	87	0.2892 (0.591)
	비공식경로	57	88	
4차년도 기업규모	1~49명	57	71	3.3607 (0.339)
	50~99명	12	14	
	100~299명	12	29	
	300명 이상	40	61	
4차년도 종사상 지위	상용직	99	156	7.7612 (0.101)
	임시직	17	9	
	일용직	0	1	
	고용주	1	2	
	자영업자	4	7	
	무급가족종사 자	0	0	

*p<0.1, **p<0.05, ***p<0.01

분석 결과, 유형 2와 유형 3은 최종학력, 취업 사교육 횟수, 취업 노력, 희망연봉에서 차이가 존재했다. 최종학력은 유형 2에 비해 유형 3의 전문대졸 비율이 높아 유형 3의 학력이 유형 2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확인된다. 반면, 취업 사교육 횟수는 유형 2보다 유형 3이 1% 유의확률로 많았고, 12가지 종류의 취업노력을 합산한 변수 역시 5% 유의확률로 유형 3의 취업노력 정도가 더 높았다. 희망연봉은 유의확률 1%에서 유형 2의 희망연봉이 유형 3보다 약 84만원 높은 것으로 확인된다. 종합해서 보면, 유형 2는 유형 3에 비해 취업 사교육 횟수와 취업노력은 적었지만 학력과 희망연봉이 더 높았으며, 이는 결국 미취업 기간을 연장시키는 것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그러나 학력이 더 높았던 만큼 취업을 한 이후부터는 유형 2의 임금상승폭이 유형 3보다 가파르다. 취업한 상태의 기업규모와 종사상 지위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은 점으로 미루어볼 때, 유형 2와 유형 3이 진입한 노동시장의 질은 유사한 것으로 판단되며 임금상승률의 차이가 노동시장의 분절로 기인한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

(3) 유형 3과 유형 4의 특성 비교

유형 3과 유형 4를 비교해보면, 유형 3은 초기 노동시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한 것으로 보이지만, 유형 4는 두 번째 관측연도부터 소득이 발생하지만 이후에 노동시장에서 이탈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인적자본이론, 신호이론, 직업탐색이론, 사회적 연결망 이론에서 설명하는 변수와 더불어 두 유형 모두 노동시장에 진입했던 2차년도의 고용상태를 분석해보고자 한다. 분석 결과, 성별, 취업 노력, 취업 사교육 횟수, 자격증 수, 희망 연봉, 종사상 지위에서 유형 간 차이가 확인되었다. 유형 4의 경우 유의확률 10%에서 여성의 비율이 높았고, 자격증 수는 유의확률 5%에서 유형 3이 더 많았다. 취업 사교육 횟수는 유의확률 10%에서 유형 3이 높았으며, 취업 노력 역시 유의확률 5%에서 유형 3이 더 높았다. 유형 3과 유형 4가 미취업을 탈출하는 2차년도의 종사상 지위는 유의확률 1%에서 유의미했는데 유형 3의 상용직 비율이 유형 4보다 높았다. 즉, 4차년도에 노동시장을 이탈하는 유형 4는 유형 3에 비해 여성의 비율이 높고, 자격증 수, 취업 사교육 횟수, 취업노력의 정도가 낮으며, 취업한 기업에서 종사상 지위는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의 <표 10>과 같다.

〈표 10〉 유형 3과 유형 4의 특성 비교

변수	범위	빠른노동시장 진입형 (유형3)	노동시장 이탈형 (유형4)	chi2 /T-test
성별	여성	87	31	3.3426* (0.068)
	남성	88	17	
연령	평균 (표준편차)	24.77714 (2.380849)	23.77083 (2.28072)	0.1334 (0.715)
최종학력	전문대졸	49	15	0.1944 (0.659)
	대졸	126	33	
	대학원	0	0	
취업노력	평균 (표준편차)	1.714286 (2.514)	.9375 (1.826591)	6.5932** (0.010)
취업 사교육횟수	평균 (표준편차)	.4742857 (.9085617)	.25 (.729325)	3.2509* (0.071)
직업훈련	미경험	168	46	0.0027 (0.959)
	경험	7	2	
직장체험 프로그램	미경험	163	43	0.6777 (0.410)
	경험	12	5	
자격증 수	평균 (표준편차)	24.77714 (2.380849)	23.77083 (2.28072)	6.1294** (0.013)
해외 연수	미경험	154	44	0.5088 (0.476)
	경험	21	4	
희망연봉	평균 (표준편차)	2584 (748.697)	2662.5 (813.091)	0.5159 (0.473)
정보 취득경로	공식경로	89	25	0.0227 (0.880)
	비공식경로	86	23	
2차년도 기업규모	1~49명	65	15	5.0701 (0.167)
	50~99명	24	2	
	100~299명	21	7	
	300명 이상	65	24	
2차년도 종사상 지위	상용직	141	24	21.7723*** (0.000)
	임시직	29	18	
	일용직	1	0	
	고용주	0	0	
	자영업자	3	5	
	무급가족종사자	1	1	

*p<0.1, **p<0.05, ***p<0.01

이와 같은 분석결과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니트형과 느린 노동시장 진입형(유형 1과 유형 2)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두 유형 모두 취업을 희망하는 비율은 비슷하였으나 구직여부와 구직횟수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즉, 졸업 후 1차년도와 2차년도에 느린 노동시장 진입형은 니트형보다 더 많은 구직행위를 통해 미

취업 상태를 탈출할 수 있었던 것이다. 둘째, 느린 노동시장 진입형과 빠른 노동시장 진입형(유형 2와 유형 3)의 비교분석 실시 결과, 느린 노동시장 진입형의 높은 취업 눈높이는 결국 느린 노동시장 진입형의 미취업 기간을 늘리는 것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기업규모와 종사상 지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아 결국 두 유형이 진입한 노동시장의 질은 유사하지만 미취업 기간만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셋째, 빠른 노동시장 진입형과 노동시장 이탈형(유형 3과 유형 4)의 비교 분석 결과, 4차년도에 노동시장을 이탈하게 되는 노동시장 이탈형은 빠른 노동시장 진입형에 비해 여성의 비율이 높고, 자격증 수, 취업 사교육 횟수, 취업 노력의 정도가 낮으며, 취업한 기업에서 종사상 지위는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노동시장 이탈형은 구직을 위해 상대적으로 적은 노력을 기울이고 불안정한 노동시장에 진입한 후 결국 노동시장을 이탈하게 되는 것으로 규명되었다.

V. 결론 및 함의

본 연구는 국내 청년 실업의 문제가 대졸자에게 집중되어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대졸자가 안정적으로 노동시장에 정착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집단중심추세분석을 통해 대졸 미취업 청년들의 임금 궤적을 추정한 결과 ① 4년 동안 소득이 전혀 없는 유형이 21.9%, ② 졸업 후 2번째 연도까지 소득이 없다가 점차 상승하는 유형이 27.7%, ③ 졸업 후 2번째 연도부터 소득이 발생하여 4개의 유형 중 가장 높은 소득을 얻는 유형이 41.3%, ④ 2번째 연도부터 바로 소득이 발생하였으나 이내 4번째 연도에서 소득이 없어지는 유형이 9.1%를 도출되었다. 이러한 4가지 유형에 대해 ① 니트형, ② 느린 노동시장 진입형, ③ 빠른 노동시장 진입형, ④ 노동시장 이탈형으로 명명하였다.

집단중심추세분석을 통해 도출된 4가지 유형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유형간 차이 검정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니트형은 네 유형 중 취업 사교육 횟수, 자격증 수, 진로 지도 및 상담횟수 등 졸업 전 취업을 위한 노력 수준이 높은 편이었지만 적극적인 구직 행위로 이어지지 않아 노동시장에 진입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느린 노동시장 진입형은 빠른 노동시장 진입형과 동일한 노동시장에 진입하게 되지만, 학력과 희망연봉이 상대적으로 높아 미취업 기간이 길어진 것으로 분석되었다. 빠른 노동시장 진입형은 학력이 높지 않지만 취업노력, 취업 사교육 등 구직을 위해 가장 많은 노력을

하여 노동시장에 가장 빠르게 진입한 유형이었다. 노동시장 이탈형은 졸업전 구직 준비 정도가 가장 낮은 수준으로 노동시장에 비교적 빠르게 진입했지만 다시 노동시장에서 퇴장하는 유형이었으며, 빠른 노동시장 진입형에 비해 여성의 비율이 높고, 자격증 수, 취업 사교육 횟수, 취업 노력의 정도가 낮으며, 취업한 기업에서 종사상 지위는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집단중심추세분석을 통해 도출된 대졸 미취업자 유형에 대한 정책적인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관측 기간 4년 동안 소득이 없었던 니트형을 느린 노동시장 진입형과 비교 분석한 결과 구직행위의 적극성의 차이가 노동시장 진입에 성공하는지 혹은 니트화 되는지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이에 따라 고학력자가 니트화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구직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현대경제연구원(2015)이 청년 니트족에 대해 분석한 보고서에 따르면 니트족의 42%는 취업경험이 부재하고, 취업경험이 있는 니트족의 경우 첫 일자리가 질 나쁜 일자리 중심이었다. 또한 니트족 과반 이상이 직업교육 경험이 부재하며 있다 하더라도 사설학원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따라서 정규교육과정 동안 직업체험 등의 과정을 확대하여 직업의식을 함양하고 공적 직업교육기관을 통해 취업의사를 고취시킬 필요가 있다. 현재 고용부에서는 실업자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고용지원센터를 운영하고 내일배움카드를 제공하고 있지만 최근 뉴스 보도에 따르면 고용지원센터와 내일배움카드의 인지도는 20%에 불과했다(이창곤, 2016). 따라서 고용지원센터와 내일배움카드의 홍보를 강화하여 구직자들이 기업에서 요구되는 역량을 강화하고 적극적으로 구직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느린 노동시장 진입형과 빠른 노동시장 진입형을 비교분석한 결과 두 유형은 미취업 기간만 차이가 있을 뿐 결국 동일한 노동시장에 진입하게 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느린 노동시장 진입형을 빠르게 노동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된다. 단기적으로는 대졸자에게 구직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현재 고용노동부의 워크넷에서 제공하는 구인정보를 구직자 맞춤형 서비스로 확대 개편하는 것을 생각해볼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한국경제(2016)에 따르면 1997년 괜찮은 일자리 수가 전문대졸 이상 수에 비해 35만개 초과 수준이었으나, 2012년에는 괜찮은 일자리 수가 전문대졸 이상 수에 비해 440만개가 부족한 수준이 되었다. 청년층이 중소기업을 기피하는 이유는 대기업 및 중견기업에 비하여 임금, 노동시간 등 열악한 처우에 있으므로 단순히 청년들에게 눈높이를 낮출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산업 구

조를 개편함으로써 ‘괜찮은 일자리’를 발굴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셋째, 노동시장 이탈형과 빠른 노동시장 진입형의 차이 검정을 통해 노동시장 이탈형은 구직노력, 취업 사교육 등 졸업 전 구직 노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며 2차년도에 진입한 노동시장의 특성 측면에서도 빠른 노동시장 진입형에 비하여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에 따라 노동시장 이탈형이 노동시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한 정책적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체험형 인턴제도보다는 정규직 전환이 담보되는 채용형 인턴제도를 장려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근로조건에 불만족하여 노동시장에서 이탈한 고학력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노동시장에 정착할 수 있도록 청년 일자리의 질적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넷째, 본 연구의 두 유형간 차이 검정을 실시한 결과 미취업자의 경우에는 졸업 전 구직노력 뿐만 아니라 졸업 후 구직노력이 노동시장 성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지금까지의 청년고용정책은 대학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음을 감안하면 미취업 졸업자는 청년고용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다. 따라서 대학 차원에서는 졸업자에 대한 취업 지원 서비스를 강화하고 정부도 다양한 민관 기관을 지역사회와 연계해 고용 지원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사각지대를 보완해야 할 것이다.

이를 종합하면,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유형은 집단중심추세분석을 통해 도출된 네 유형 중 니트형, 느린 노동시장 진입형, 노동시장 이탈형이며 각 유형에 맞는 맞춤형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또한 졸업 전 구직 행위 뿐만 아니라 졸업 후 구직 행위가 미취업 기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각 단계별 지원 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고학력자들이 근무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한편,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 범위에서 한계를 갖는다. 첫째, 본 연구는 대졸자의 4년간의 노동시장 이행유형을 분석하였다. 청년층을 대상으로 노동시장 이행유형을 48개월간 분석한 박미희·홍백의(2014)의 연구보다는 분석기간이 길지만, 청년층의 노동시장 이행 과정은 노동시장 진입 및 퇴장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을 감안하면 10년 이상의 기간 동안 관측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본 연구의 표본 수는 총 442명이며 유형 별 표본이 100명 미만인 유형이 존재한다. 이에 일반화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을 수 있으므로 앞으로의 연구는 더 많은 표본을 바탕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따라서 앞으로의 연구는 일반화에 대한 한계를 극복하고 장기적인 고용 정책을 설계하기 위하여 더 많은 표본을 대상으로 10년 이상의 장기 노동시장 이행유형을 분석할 것이 요구된다.

■ 참고문헌

- 강영주·송성화 (2011). 한계노동력의 노동시장 이행성에 관한 연구. 『한국정책연구』, 11(2): 1-25.
- 고가영. (2015). 고졸 취업이 청년 고용 견인한다. 「통합과 진단」. LG경제연구원
- 고용노동부. (2003). 『국민의 정부 5년(1998-2002) 실업대책백서』
- _____. (2005). 『청년고용촉진대책』
- _____. (2010). 『청년내일만들기 제1차 프로젝트』
- _____. (2011a). 『청년내일만들기 제2차 프로젝트』
- _____. (2011b). 『중장기 인력수급전망 2011~2020』
- 기획재정부. (2014). 『학교에서 직장까지: 일자리 단계별 청년고용대책』
- _____. (2015). 『청년 고용절벽 해소 종합대책』
- 김광석. (2015). 청년 니트족 특징과 시사점. 「현대경제연구원 이슈리포트」, 2015(3): 1-12.
- 김성락·김재훈. (2014). 연결망과 직업관이 일자리 질에 미치는 효과: 대졸 신규 입직자를 중심으로. 「지역사회학」, 15(2):127-154.
- 김영재. (2013). 한국 청년실업정책 비교에 관한 소고: 김대중·노무현·이명박 정부를 중심으로. 「한국행정학회 동계학술발표논문집」
- 김창환·임후남·이기준. 『2014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건강보험 및 국세DB연계 취업통계연보』. 한국교육개발원
- 노동부. (2009). 『청년고용 추가대책』
- 박가열·천영민·조지혜. (2008). 『대졸청년층 취업가능성 지수개발 기초연구』. 한국고용정보원.
- 박영범. (2013). “청년실업 문제 풀기 위한 현실적 대안”. 한국일보, 2013.11.21.자.
- 배성숙·장석인. (2014). 대학 졸업예정자의 취업지원프로그램 참여가 구직효능감 및 구직성과에 미치는 영향. 「한국인적자원관리학회」, 21(5): 115-136.
- 배준용·구은서·박건영. (2016). “3배 급증한 졸업 유예, 취업에 별 도움 안돼”. 조선일보, 2016.02.29자.
- 서동철·최승진. (2015). “정권 세 번 바뀌어도 청년실업대책은 ‘붕어빵’...실업자 5만 늘어”. 매일경제, 2015.05.31자
- 유일·김소라. (2013). 대학 졸업예정자의 구직강도 결정요인 연구. 「기업경영연구」, 20(4): 77-95.
- 유홍준·정태인·전은주. (2014). 한국 대졸 경제활동인구의 노동시장 성과. 「한국인구학」, 37(2): 49-69.
- 이규용·김용현. (2003). 대졸 청년층의 노동시장 성과 결정요인. 「노동정책연구」, 3(2): 69-94.
- 이병훈. (2002). 구직활동의 영향요인에 관한 탐색적 연구. 「한국노동경제논집」, 25(1): 1-21.

- 이서윤. (2014). 취업, 임금, 재실업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본 한국 실업자 직업훈련의 효과성 분석. 「한국사회정책」, 21(3): 159-187.
- 이시균. (2009). 『공공 취업지원서비스가 고용성과에 미치는 효과』. 한국고용정보원
- 이윤성·동상옥·정윤아·강창완·김규곤. (2010). 대학(원)생 졸업 직후 취업성공의 배경.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12(3): 1523-1533.
- 이지영·장재윤·김명언. (2005). 대학 4학년생들의 진로미결정, 직업탐색행동 및 구직 성과 간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11(1): 1-23.
- 임다희·조일형·권기현. (2014). 대졸자의 취업성과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임금 및 직무만족을 중심으로. 「GRI 연구논총」, 16(3): 529-554.
- 장수현·유성경. (2014). 대학교 4학년의 구직행동과 일의 목적/의미 및 부모지지의 관계에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인간이해」, 35(1): 1-17.
- 장옥희·이상호. (2009). 대학생의 역량과 구직성과와의 관계에 관한 연구. 「인사관리연구」, 33(1): 31-59.
- 장지현. (2006). 대졸자의 노동시장성공에 대한 구직정보 획득경로 비교 연구: 학교를 중심으로. 「한국교육」, 33(4): 141-165.
- 정지선·이수정·신정철. (2011). 대졸청년층의 구직과정 및 취업의 질적 수준 분석: 전공계열별 차이를 중심으로. 「직업능력개발연구」, 14(3): 53-78.
- 조영하·김병찬·김봉준. (2008). 대학졸업자의 취업성과에 대한 영향요인 분석. 「교육행정학연구」, 26(2): 437-462.
- 채구목. (2007). 신규대졸자의 취업 및 임금수준 결정요인 분석. 「한국사회복지학」, 59(4): 35-61.
- 채창균·김태기. (2009). 대졸 청년층의 취업 성과 결정 요인 분석. 「직업교육연구」, 28(2): 89-107.
- 통계청. (2015). 2016년 2월 고용동향
- 한국경제. (2016). 이기권 장관 ‘청년 160만명 논다면 사회가 감당할 수 있을까 두려움 앞선다’. 2016.05.17자.
- 황여정·백병부. (2008). 대졸 청년층의 노동시장 성과 결정요인. 「직업능력개발연구」, 11(2): 1-23.
- 황정희·임석빈. (2015). 전문대학생의 진로결정수준, 고용가능성, 진로준비행동 간 관계. 「진로교육연구」, 28(2): 87-105.
- Blau, D. M., & Robins, P. K. (1990). Job search outcomes for the employed and unemployed.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637-655.
- Blau, G. (1993). Further exploring the relationship between job search and voluntary individual turnover. *Personnel Psychology*, 46, 213-330.
- _____. (1994). Testing a two-dimensional measure of job search behavior. *Organizational*

- Behavior and Human Decision Processes*, 59, 288-312.
- Feather, N. T., & Bond, M. J. (1983). Time structure and purposeful activity among employed and unemployed university graduates. *Journal of Occupational Psychology*, 56(3), 241-254.
- Granovetter, M. (1974). *Getting a Job: a Study of Contacts and Careers*. Chicago, IL: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_____. (1995). *Getting a Job: a Study of Contacts and Careers*, 2nd edn. Chicago, IL: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Holzer, H. J.. (1987). Job Search by Employed and Unemployed Youth. *Industrial and Labor Relations Review*, 40(4): 601-611.
- Manroop, L., & Rihardson, J. (2015). Job Search: A Multidisciplinary Review and Research Agenda. *International Journal of Management Reviews*, 00, 1-22.
- Schwab, D. P., Rynes, S. L., & Aldag, R. J. (1987). Theories and research on job search and choice. In K. M. Rowland & G. R. Ferris (Eds.), *Research in personnel and human resources management* (Vol. 5, pp.129-166). Greenwich, CT: JAI Press.
- Steffy, B. D., Shaw, K. N., & Noe, A. W. (1989). Antecedents and consequences of job search behaviors.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35, 254-269.

金鎮宙: 성균관대학교 국정전문대학원에서 행정학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주요 관심분야는 정책 분석평가, 복지정책, 교육정책, 청년정책 등이다. 최근 논문으로는 중등직업교육 정책 대상자의 노동시장 이행유형 분석이 있다(jinju1122@skku.edu).

趙敏孝: 미국 Georgetown University, McCourt School of Public Policy에서 2001년 정책학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University of Chicago, The Harris School of Public Policy에서 2006년 정책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현재 성균관대학교 행정학과/국정전문대학원 부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 연구 분야는 교육, 복지, 이민, 형사정책 등 다양한 사회정책의 분석 및 평가다. 최근 주요 논문들은 *Economics of Education Review*(2012), *Crime & Delinquency*(2013), *Journal of Adolescence*(2014), *International Review of Public Administration*(2014, 2015), *Asia Pacific Journal of Education*(2016), *Asian Pacific Migration Review*(2016) 등에 게재하고 있다(chomh@skku.edu).